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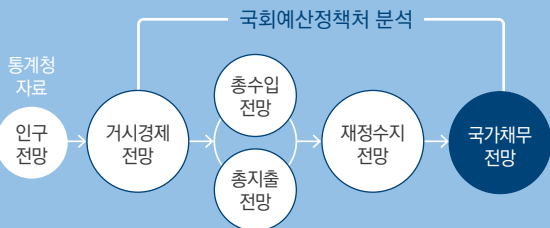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NABO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2017~2021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2017~2021년 동안 총수입은 저성장의 장기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총지출은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증가로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기초를 유지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41.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NABO 재정전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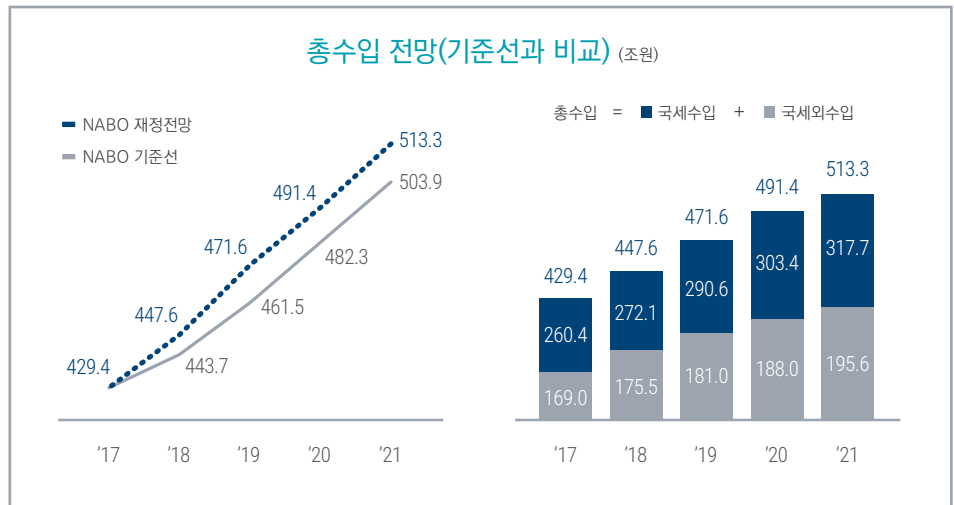
2017~2021년 주요 재정전망 결과

	'17	'18	'19	'20	'21
총수입 (조원)	429.4	447.6	471.6	491.4	513.3
총지출 (조원)	409.7	431.0	461.7	481.5	509.4
관리재정수지 (조원)	-22.0	-28.8	-39.0	-40.8	-48.1
국가채무 (GDP 대비, %)	38.5	39.3	39.9	40.5	41.0

I. NABO 재정전망

1.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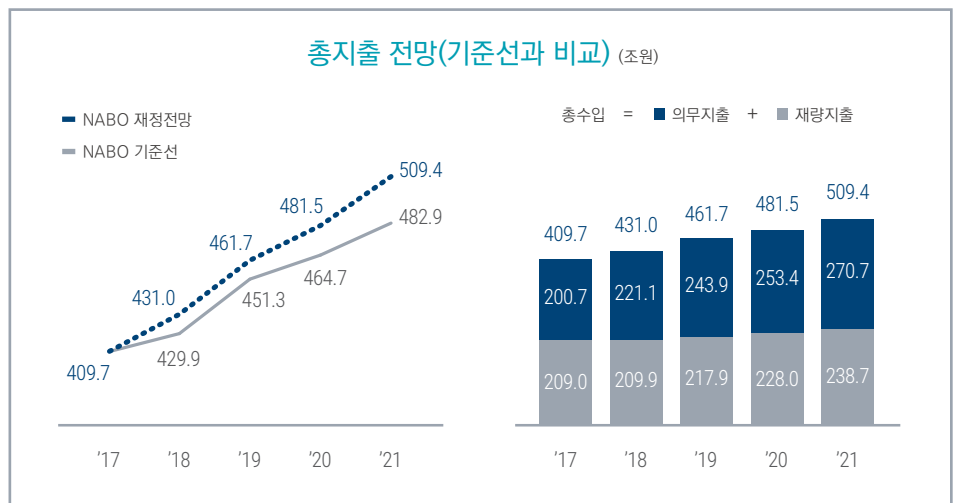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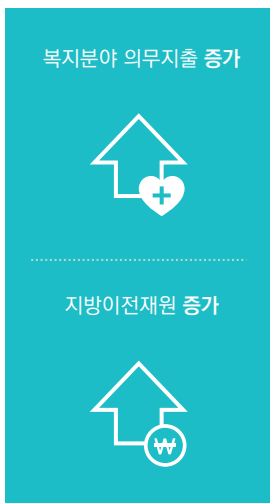
5년(2017~2021년)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6년(4.1%)에 비해 0.5%p 높은 4.6%로서 GDP 대비 평균 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기준선은 현행 법과 제도가 유지된 경우를 가정한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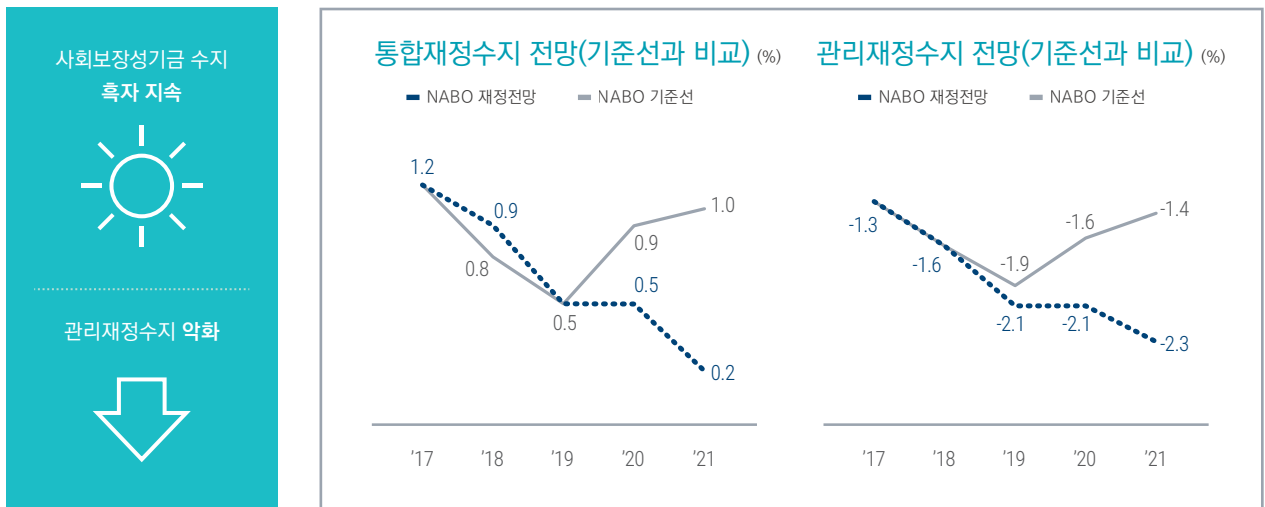
2. 총지출

5년(2017~2021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2016년(4.4%)에 비해 1.2%p 높은 5.6%로서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23.9%에서 2021년 24.8%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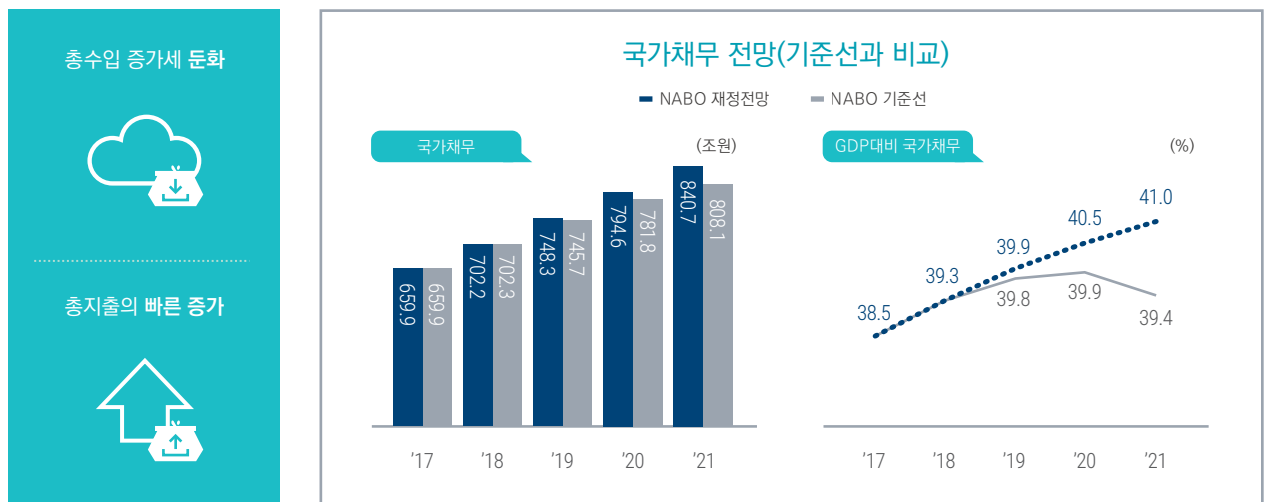
3.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기초를 유지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1.3%에서 2021년 -2.3%로 악화될 전망



4.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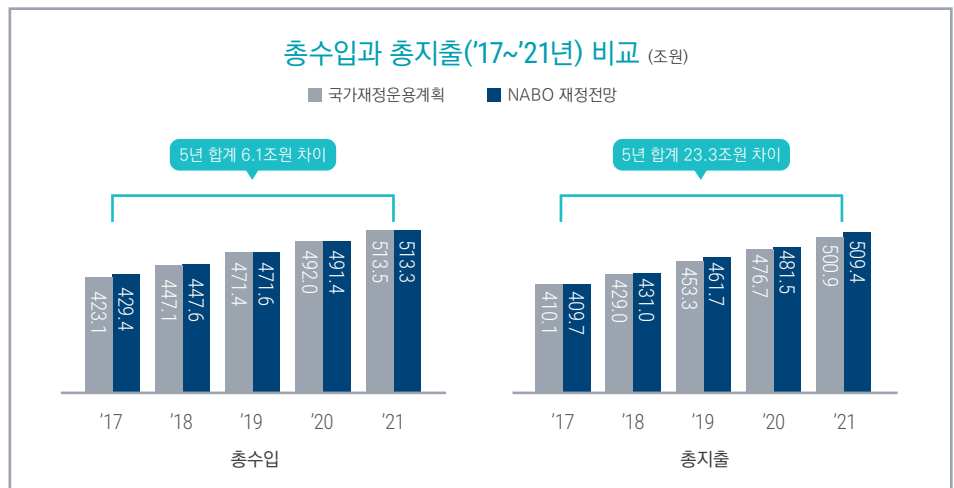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와 복지분야 등 의무지출의 확대에 따른 총지출의 빠른 증가로 2017년 659.9조원(GDP 대비 38.5%)에서 2021년 840.7조원(GDP 대비 41.0%)로 증가할 전망



II.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비교

1. 총수입과 총지출 비교

추계 상의 차이로 인해 정부 계획과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의 차이가 더 클 것으로 전망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교

정부는 5년(2017~2021년)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내외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으로 관리할 계획. NABO 전망에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3%(2021년)로 적자가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41.0%(2021년)로 증가

